

헌법 위배되는 조항이 아직 '행세' 해서야...



◇지난 2000년 조계종 총무원 청사에 내걸린 현수막. 문화재 도난 방지와 도난 문화재 회수를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상 공소시효 조항과 민법상 선의취득 조항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통사찰보존법** = 불교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률이 바로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이다. 전사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대로라면 전통사찰을 민족문화유산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찰 자연환경 및 수행환경이 위협받는 사례가 적지 않고, 사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전통사찰에 대한 재산권 침해 △주지의 인사권, 재산취득 및 목록비지 등 사유재산을 간섭하는 행위 △불교계 내부의 분쟁에 대한 정부의 개입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전통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와는 다르고, 실제로 전통사찰 중 국가지정문

- 전통사찰보존법** **종교행위, 재산권행사, 침해요소 많아**
- 문화재보호법** **공소시효·선의취득 특례조항 필요**
- 국도이용법** **'문화재구역' 등 신설 환경훼손막아야**

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찰이 적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전사법을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사찰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종교행위에 대한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사법 제7조 재산목록 작성 비지 조항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과 시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건축물의 경우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도록 소속대표단체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법에서 이를 다시 규정해 놓음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대정부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무안 마련에 들어감에 따라 불교관련 법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사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불교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개정과 보완이 필요한 불교관련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짚어봤다.

보완 시급한 불교관련법률... 그 방향

'재산관리인 임명'과 관련한 제12조도 불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보면 '전통사찰주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문장부장관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제6조에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행위를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놓은 것과 달리 소속 대표단체를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인 임명 사유도 불분명하다.

조계종은 이처럼 종단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찰 경내를 관통하거나 주변 지역에서의 각종 도로 개설·건축·토목 행위, 케이블카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사법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재보호법** = 국가지정 문화재의 64%가 불교문화재이고 이중 42%를 소유하고 있는 불교계에서 가장 피부에 맞닿는 문제가 바로 문화재 도난·도굴 및 불법유통이다. 특히 8만여 건으로 추정되는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는 그동안 도난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다행히 그간 및 차

사찰 경내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문제도 불교계에서 현안으로 부상하는 부분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소유주를 찾는 공고를 내게 되어 있으나 해당 소유주에게 공고 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어 '일면 신청을 하고 모르던 국가에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찰 출토 매장문화재처럼 소유권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공고 사실을 인지시킬 수 있는 법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법률과 시행령에는 지역, 지구, 구역 등에 대해 건축 관련 법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에 관해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해 도시와 농촌,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구분해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 법률상의 용도지역에 '문화환경보전지역'을 두고, 용도구역에 '전통문화 및 문화재구역'을 신설해 사찰 문화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 이 법률에 의한 영향평가에는 '문화사적 및 문화유산 영향평가' 항목이 없다. 따라서 불교 문화유산은 각종 개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조계종은 이 같은 항목을 신설하고, 이 법의 시행령 평가서 내용에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통사찰을 포함한 '문화사적 및 문화유산' 분야가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 최근 조계사의 문화지구 지정이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문화지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문화예술진흥법이다. 그러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주요 조항에는 '전통문화' 조항이 빠져 있어 불교계에서 문화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한명우·권형진 기자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구동현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 과장



유학 온 외국인 스님의 꿈

“사회 복지 전공후 귀국 봉사하는 수행자 될 터”

'보성님, 스님이 아파요' 벨 소리에 놀라 잠을 깨어 전화를 받으니 다급히 들려오는 나빈의 목소리다. '왜? 어떻게 아파요?' 놀란 목소리로 불을 밝히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아직까지 한 국립이 서툰지라 이말 저말 섞여가며 대중 이해를 하고는 통리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스님의 열혈엔 수심이 가득하고 큰 눈망울엔 눈물이 글썽이다.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추어 나빈과 함께 시라리다나 스님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소화기능 장애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겹쳐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맑은 안 해도 한국에 와서 한국음식과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말 배우기가 쉽지 않았던가 보다.

얼마전 나빈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방 한구석에 앉아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너무 측은해서 네팔행 비행기표를 알아보니 성수기라 일주일 후에나 티켓을 구할 수 있단다. 나빈에게 일주일 후에 고향에 갔다 오라고 했더니 '한국어 학당 수업도 빠질 수 없고, 잠았다가 방학 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디다' 한다. 일주일 후에는 머리를 깨끗이 삭발을 하고 네팔행 전통불교 방식으로 혼자서 고인을 위한 의식을 거행했다.

또 일이 벌어졌다. 스님이 풀 죽은 모습의 나빈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오며 '보성님 나빈이 다쳤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랑 야외 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다 장남님이 뒤통수를 때렸는데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넘어졌단다. 병원은 들렀다는 모 양인데, 팔 다리에 피 물은 봉대에 스님의 부축을 받고 질투거리며 모습을 훑어본다. '나빈 조심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좀 어때?' 서투른 한국어로 '조금 아파요' 하고는 금세 눈물을 글썽인다. 시라리다나 스님은 JGO 스리랑카 지

부의 추천으로 한국불교를 공부하러 온 스리랑카 시암종 소속의 스님이다. 나빈은 JGO 네팔지부 청년회 멤버로서 한국에 온 네팔전통불교 소속 재가 성직자이다. 두 사람은 일년 남짓 진각종 통리원에 머물면서 동국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수료하고 금년 봄 위덕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학교로 내려간 한 달 보름이 지나갔다. 학교생활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는지, 일년 조금 넘게 같이 있으면서 교우 정도는 미운정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저께는 전화를 했더니 나빈이 보고 싶다고 농성을 떠났다. 무슨 과목이 어렵냐고 물어보니 영어가 제일 쉽고, 불교 기초 보다는 미운정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저께는 전화를 했더니 나빈이 보고 싶다고 농성을 떠났다. 무슨 과목이 어렵냐고 물어보니 영어가 제일 쉽고, 불교 기초 보다는 미운정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저께는 전화를 했더니 나빈이 보고 싶다고 농성을 떠났다. 무슨 과목이 어렵냐고 물어보니 영어가 제일 쉽고, 불교 기초 보다는 미운정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남방불교의 보고 스리랑카, 북방불교의 실크로드 네팔, 비록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나이 차도 많이 나지만 두 사람의 꿈은 한결같다. 불교성직자로서 불교 사회복지를 전공한 후 귀국하여 자기 나라가 두루두루 잘 사는 나라, 부처님 은혜 가득한 향기로운 나라가 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다.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NGO 활동도 중요하지만 인력 계발과 같은 정신적 지원이 더 큰 미래로 향하는 지원이라 생각하며, 제2의 시라리다나 스님, 제2의 나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두 사람의 한결같은 꿈이 꼭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앞날에 부처님의 은혜로움이 가득하길 바란다.

아기가 태어나고 부모가 기쁘게 하는 것은 아기의 웃음
사랑하는 이 간혹 귀여운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쁘게 웃고

사랑,
너 모든 것들 다 주어도
모 다 가듯 마지않게

번거와 적멸의 아늑다운 잠
절간이야기

가을이 깊어지고...
가을이 깊어지고...
가을이 깊어지고...